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음 3월 24일) 제17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 대선 D-19 대선후보들, 어르신 표심잡기 안간힘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대선 후보들이 '실버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각 후보별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노인 관련 공약이다.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등이 선연적 담론 싸움에 가깝다면 노인 관련 공약은 현실에 더 닿아있다. 자칫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을 경우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더 조심스럽다. 이 때문에 후보별 차이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념 성향보다 복지 차원의 실리 추구 정책을 피한 탓이다.

지난 18일 양강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어르신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덕진 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어르신 정책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치매국가책임제, 반값 톨니,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도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 이하 3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이들 후보들 외에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기초연금 인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노인표'를 타깃으로 한 공약들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은 일제히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를 30만원까지 올리는 게 후보들의 공

후보자별 연금 인상 차이점

문재인, 소득 하위 70%

안철수·유승민은 50%

홍준표·심상정, 65세 이상 무조건 30만원 지급

'노인의 적' 치매 공약도 쏟아져

문재인, '국가책임제' 제안 지역마다 지원센터 설치 조기 검진·돌봄서비스 제공

안철수, 치매마을 시범 조성

홍준표,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 내놓아

유승민, 등급 완화 통한 국가지원 대상 확대 약속

통 공약이다. 다만 세부 방안이나 실행 시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 차등없이 내년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다가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을 위해서는 매년 7조~10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홍준표 후보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정지출 합리화와 세출 조정을,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증세를 통한 전반적인 세입세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노인의 적' 치매와 관련된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며,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치료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 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 설치와 치매 환자 건강보험급여 우선 적용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또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 두배로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에서 12%(80만명)로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도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방안을 내놨고 유 후보는 치매 등급 완화를 통한 국가 지원 대상자 확대를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9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전주 월드컵경기장을 현장방문해 김승수 전주 시장과 추진상황 청취 및 안전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미래의 메시·호날두 맛이 '이상'無

송하진 지사, 전주월드컵경기장 현장 점검

송하진 지사가 19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그동안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시설을 점검했다. 경기장을 방문한 송 지사는 전주에서 개막경기가 열리는 만큼 국내 6개 개최도시 중에서 국내의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주요시설 개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U-20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국내의 선수단과 전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및 경기장 진출입로와 주차 공간 확보, 교통수송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팀 2경기를 포함 총 9경기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선수단 및 주요 초청 내빈 등 관람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폭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테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호 경비 등 신변보호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점검에서 전주시장을 비롯한 월드컵 추진단 관계자들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이날 맡겨지는 시설 개보수를 마무리하고 선수단 수송대책을 중심으로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및 주차 대책, 선수단의 안전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하진 지사는 대회준비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월드컵추진단 관계자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 보다 철저히 준비해 개막도시로서 전북의 위상을 드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YS 차남' 김현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교수는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하며 "문 후보만이

민주화 전통의 맥을 잇고 영호남의 진정한 화합과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4.19혁명 57주년이라는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화합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창조에 동참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저의 불찰로 말미암아 국민과 아버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이 자리를 통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그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있었지만, 후보의 지속적인 참여요청에 중차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힘을 보태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韓-美, 축산냄새 문제 해결 머리 맞대다

농진청,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약취 원인물질 흡착 신기술 소개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19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축산냄새 저감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의 냄새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제 발표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상통 연구사는 가축분뇨의 주요 냄새물질인 암모니아와 휘발성 탄소화합물, 휘발성 유기산 등 '축산냄새의 원인

과 배출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세종대학교 송호찬, 권일환 교수는 가축분뇨 바이오매스 전환기술의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스마트 바이오차 디자인의 냄새저감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스마트 바이오차 디자인'은 축산냄새 관련 가스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하게 해 냄새원인 물질의 휘발성을 억제하는 최신 기술이다. 국의 전문가로는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청 소속 노경신 박사가 '바이오 다공성물질(바이오차)을 활용한 돈사 냄새 저감 시스템 개발'에 대해, 브라이언 우드베리 박사가 '미국 축산냄새 저감정책과 정책방향', 에어엘 소지 박사가 '미국 축산냄새의 현황

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은 연간 6,700만 마리의 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억 3,200만㎥ 상당의 분뇨가 발생한다. 과거 주요 환경법령에서 면제됐던 축산환경 관련 규제사항은 현재 미국 환경청에 의해 법령(가축분뇨 및 약취)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주 법령으로 냄새물질을 규제 중에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연방법령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상도·동교, 지지로 다시 뿔뿔

扶來 부안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5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대상 대회 >
일시 : 2017. 5. 5(금) 09:00 ~ 15:00
장소 :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주관 : 부안농악보존회,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 대한민국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